

社說

— 지령 1천호를 맞이하여 —

금번에 본보는 지령 1천호를 맞이했다. 대
학신문 사상 보기드문 경사라 아니할 수 없
다.

1955년 5월 12일 대관 4년의 '신동대학보'
로 창간하여 월간, 격주간, 주간
을 거쳐 지금의 주간 12면 체제에
이른 대학주보는 경희역사의 산
증인임을 자부하면서 지금 대학주
보의 커다란 한 획이 될 지령 1천
호를 맞이했다.

과거 대학 신문은 그 대학의 사
상과 정신을 대표하면서 학내의
그리고 과거 사건을 보도하고 건전
한 학풍 조성과 대학 발전의 미래
를 비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아
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구조 속에
서 학내의 많은 학술적 흐름과 경
향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그 선
도적 역할 또한 맡아왔다.

또한, 독자와의 대화와 정보교
환이 독자를 위한 길임을 인식하
고 과거 모니터제도와 통신원제도
를 두어 독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
울이기에 힘썼으며, 독자에게 다
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일년에
몇차례에 걸쳐 본보에 관한 인식
도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자 자신
들은 학내의 올바른 비판과 정론
의 언론으로서 자리잡기 위해 언제
나 취재노력과 카메라를 들고 신
발 밑창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열
심히 취재하였다. 또한 대학신문
이 유신과 독재에 맞서 결코 자신
들의 편을 굽히지 않았고 투쟁하
는 것을 우리모두는 기억할 것이
다.

그러나 대학주보가 이러한 과거
에 자족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자
명한 일이다. 대학주보는 이제 지
령 1천호를 기점으로 새로운 목표
를 제시하고 매진해야한다. 과거
를 답습했던 이제까지의 낡은 허
물은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이제 그
허물을 벗고 다시 새로운 허물벗
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그 시점은 다름아닌 바로 지금
이다. 1천이라는 수의 미학 때문
만은 결코 아니다. 바로 1천이라
는 의미와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
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신문은 특수한 주변상황'
을 안고 있다. 대학이라는 특수한
테두리 안에서 독자들에게 다가가
야 한다. 학생과 교수, 교직원,
동문이 대학 신문의 독자이다. 그
리고 대학의 신문은 그들에게 명
확한 의무가 있다. 바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올
바른 글을 쓴다는 정론 직필의 의
무이다.

대학신문은 대학의 언론으로서
대학이라는 이름에 맞게 새로운
발돋움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고 지금도 그
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대학신문
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다. 표현하는 어휘만
약간 다름은 그 의무는 매체혁신이라는 단어
로 표현되기도 한다.

매체혁신은 이제 싸이 자라 꽃이 피는 시기
로 다다르고 있다.

대학주보는 냉철한 지성과 패기로 이루어져
왔다. 바로 대학인의 뜨거운 가슴 하나 하나로

이룩한 것이다. 어느 누구하나의
이론적 성취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활자 한자 한자가 바
로 대학신문을 사랑하고 아껴왔던
독자들의 뜨거운 온기인 것이다.
이제 대학신문의 그 활자 한 자한
자를 되찾으며 대학신문을 다시
보기 바란다.

그리고, 또 잊어서는 안될것은
대학주보는 본래로 경희의 신문이
라는 것이다. 바로 경희를 대표하
고 경희 내부의 모든 이익과 갈등
까지도 지니고 있는 것이리라. 그
럼으로써 대학주보는 경희를 이끌
어 나간다. 경희의 모든 것은 대
학주보에 있다.

대학주보는 언제나 문제 없이
넘어가는 신문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을 파헤치고 함께 토론하는
그런 잡지였고 이후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모든 바
람은 대학주보로부터'라는 80년
대의 문구는 이제 더욱 새로운 의미
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바로 '현
재와 미래를 대학주보로부터 그리고
그 미래의 발전을 경희로'라고 말
이다.

대학신문의 궁극적인 방향이 그
것이 아닐진대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은 대학 신문의 제무담파기와
다름아닐 것이다.

이와함께 대학주보의 또다른 책
임은 바로 경희인 모두가 일체가
되고 통치는 경희문화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는 것일 것이다. 새
로운 역사의 디딤돌로서 사회발전
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이외에 대
학내 구성원간의 일체감과 그 일
체감을 공유하기 위한 대학문화의
제시야말로 또다른 과제임을 잊어
서는 안될것이다.

이제 대학주보는 1천이라는 수
자를 뛰어 넘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며 정리를 해야할 시기이고
다시 쉬지 말고 매진해야 할 바로
그 때인 것이다. 뒤를 돌아보고
이전까지의 모습을 정리한다는 것
은 결코 과거의 회상이 될 수
없다.

바로 미래로 향하기 위한 준비
이며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익힘
이리라.

바야흐로 대학주보는 살아 숨쉬
는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진지
하게 고민하는 기자의 모습과 신
문의 모습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자와 신문의 알뜰한 고민은
독자를 기만할 뿐임을 가슴 깊이 새겨두자.

그리고 글자 한자에 담긴 하나에 기자의 생
명을, 기자의 생명을, 신문의 생명을 걸수 있
는 그런 대학주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조영식 총장

대학주보가 지령 1천호를 맞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하
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장장 37
년간을 쉬지않고 달려온 역대 주
간, 2백 5십여 대학주보 동문과
현역기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
해서도 모든 경희인과 함께 큰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신문의 내용이나 규모, 체제 등
모든 면에서 우리 대학주보가 대
학신문의 정상에 서있음을 새삼
확인하면서 정론직필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또
한 '해내야만 한다'는 신념과 불
굴의 투지로 일관한 경희 역사의
반려자이자 거울로서 그 소임을
충실히 해온 노고에 감사하는 마
음을 전합니다.

본인은 지령 1천호를 맞는 대
학주보 그 면면에 대학주보인의
경희와 조국에 대한 순정과 사랑
이 얼마나 많이 담겨있는지 잘알
고 있습니다. 대학주보가 창간된
것이 55년 5월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채 정비도 되기 전이
었고 경희도 막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으로 당시 신문을 제작하던
는 것은 여간 어렵고 곤한 일이

총장축사 — 지령 1천호에 즈음하여

아니었습니다. 오직 언론(言路)
를 띄워야 대학이 살고 나라가
건강해진다는 일념으로 고생을
감수하면서 창간한 것입니다. 그
런 어려움속에서도 정도(正道)의
를 이탈하지 않고 스스로 격조
와 기개를 이어온 것은 대학주보
인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지순한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
월 대학주보가 대학문화의 선구
자로서 그리고 경희 발전의 독려
자이자 대변자로서 경희정신을

성하는데 두었습니다. 이른바 우
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교시
(敎是)인 '문화세계의 창조'의
정신입니다. 인류의 삶은 정신과
물질 그 어느 한 쪽만으로 완전
히 충족될 수 없으며 이미 50년
대에 경희는 현대 문명의 한계를
예견하고 그 대안으로 '문화세
계'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동양의 정신문명과 서구의 과학
기술문명이 조화되고 변증법적
으로 승화되어 이룩되는 인간중심

고 있을 때 과감히 일어서서 '잘
살기 운동'을 벌였고 이를 밝은
사회운동, 인류사회개선운동, 세
계평화운동 등으로 확장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전세계에 확산시
켰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대학주
보는 이러한 경희의 정신과 의지
를 바탕으로 학내의 여론을 주도
하고 동문과 국내외에 전달함으로
써 경희의 모습을 정립하는 막중
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는 2천년대를 앞두고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에 서있습
니다. 세계질서의 개편과 인류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

주기 바랍니다. 경희의 대학주보
의 발전은 이분된 것이 아니라
서로 순환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러한 관계의 긴밀성은 오늘 더
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주
보의 발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결코 시류에 매몰되지
않고 뚜렷한 주관과 목표를 가지
고 정론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현
실에 대한 매운 비판은 과거를 조
감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며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교감만이 비판
의 말에 무게를 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잘못 소화하면 균열,
분열이 생기기, 이 때에는 진정한
의미의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
시려지고 노력하는 신문으로 우
측서길 바랍니다.

셋째, 진리에 봉사하며 민족정
정의에 충실하고 역사발전의 기
여하는 신문이 되어 주기를 간곡
히 부탁드립니다. 대학의 제일 임무
는 진리탐구에 있으며 대학의 힘
은 무엇보다 진리의 탐구와 진실
의 현실적 구현에 집중되어야 합
니다. 그것은 진리의 탐구와 실천
이 곧 정의의 실현이며 이것이 축
적되어야 역사가 발전해갈 수 있
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막중하고
소중한 책무를 마다하지 말고 지
난 세월 쌓아온 모든 연륜과 정통
을 바탕으로 2천호의 그날을 향해
달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대학주보의 1천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축하하며 대
학주보의 앞날에 무궁한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고 모든 대학주보
가족들의 앞날에 큰 발전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희와 조국을 위한 언론

뚜렷한 주관과 역사의식 가져야

이끌고, 영욕과 부침이 거듭된
한국 현대사를 증언하면서 많은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경희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에
결코 굴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으
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늘
에 이른 것에 대해 창간한 사람
으로서 다시 한 번 보람과 기쁨
을 느낍니다.

대학주보가 지령 1천호의 큰
위업을 달성한 터전인 '경희'는
창간초부터 교육의 궁극적 이상
을, 바람직한 미래의 세계상을 모
색하고 현대인의 세계에서 그 대
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개인을 양

주의에 입각한 종합문명사회이자
'제3천년의 시대'의 사회를 말합
니다. 실제로 80년대말부터 일어
난 신세계질서의 기운은 이러한
시대의 도래가 가까워졌음을 보
여주는 징표이며 많은 사람들이
경희의 미래에 대한 탁월한 분석
과 대안의 마련에 경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문명사의 진행은 우
리의 예견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
으며 경희는 그러한 미래를 좀
더 앞당기기위해 또한 실천적 노
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국이
전란의 상흔에 신음하고 절망하

고 있을 때 과감히 일어서서 '잘
살기 운동'을 벌였고 이를 밝은
사회운동, 인류사회개선운동, 세
계평화운동 등으로 확장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전세계에 확산시
켰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대학주
보는 이러한 경희의 정신과 의지
를 바탕으로 학내의 여론을 주도
하고 동문과 국내외에 전달함으로
써 경희의 모습을 정립하는 막중
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는 2천년대를 앞두고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에 서있습
니다. 세계질서의 개편과 인류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



대학주보 연혁

- ▲ 1955년 5월 12일 '신동대학보'라는 제호로 창간, 前 보건 소년물에서 매월 15일과 30일 발행, 초대 주간 이원우교수, 편집국장 이규중교수
- ▲ 10월 10일 제8호부터 월2회 발행에서 주간(旬刊)체제로 변경, 편집실 가교사로 이진후 편집국장(편집부·업무부·조사부)로 분리
- ▲ 1958년 5월 15일 창간3주년 기념사업으로 자매지인 영자지 'University Life' 창간
- ▲ 1960년 3월 25일 지령 100호 발간, '경희대학주보'로 제호변경, 발간부수 1만부로 확대
- ▲ 6월 30일 106호부터 지금의 제호인 '대학주보'로 변경
- ▲ 1963년 3월 신문부수 1만5천부로 확장
- ▲ 9월 20일 대학신문사상 처음으로 '대학뉴스'의 일간지 발행
- ▲ 1964년 9월 18일 지령 200호를 맞아 부록 '경희학원관'을 타블로이드판 4면으로 월1회 발간, 대학주보 3면에 '교황산'이란 제하의 경희학원관 각급교 보도판 신설
- ▲ 9월 25일 신문발행부수 당시 최대인 2만부 확장
- ▲ 1965년 3월 대학주보·방송국·영자지 통합 신문방송국으로 개편
- ▲ 1979년 매주 4면체제에서 월1회 8면체제로 교체
- ▲ 1981년 주간 4면·8면체제로 변경
- ▲ 3월 9일 700호 발행
- ▲ 1982년 매주 8면체제 정착
- ▲ 1984년 4월 2일 지령 800호를 발행하면서 현행과 같은 '가로스기신문' 도입
- ▲ 1985년 3월 11일 주간 12면 발행
- ▲ 5월 5일 '상황인식과 이상'과 '대학주보편집위원회발간'
- ▲ 1987년 11월 10일~13일 자유언론정취를 위한 신문제작자 및 철야농성(사진 검열철폐 주장)
- ▲ 1988년 3월 14일 창간 33주년 지령 900호 발행
- ▲ 1989년 5월 12일 창간 34주년
- ▲ 1990년 11월 6일 수완원퍼스 신문방송국 이관
- ▲ 1991년 5월 12일 창간36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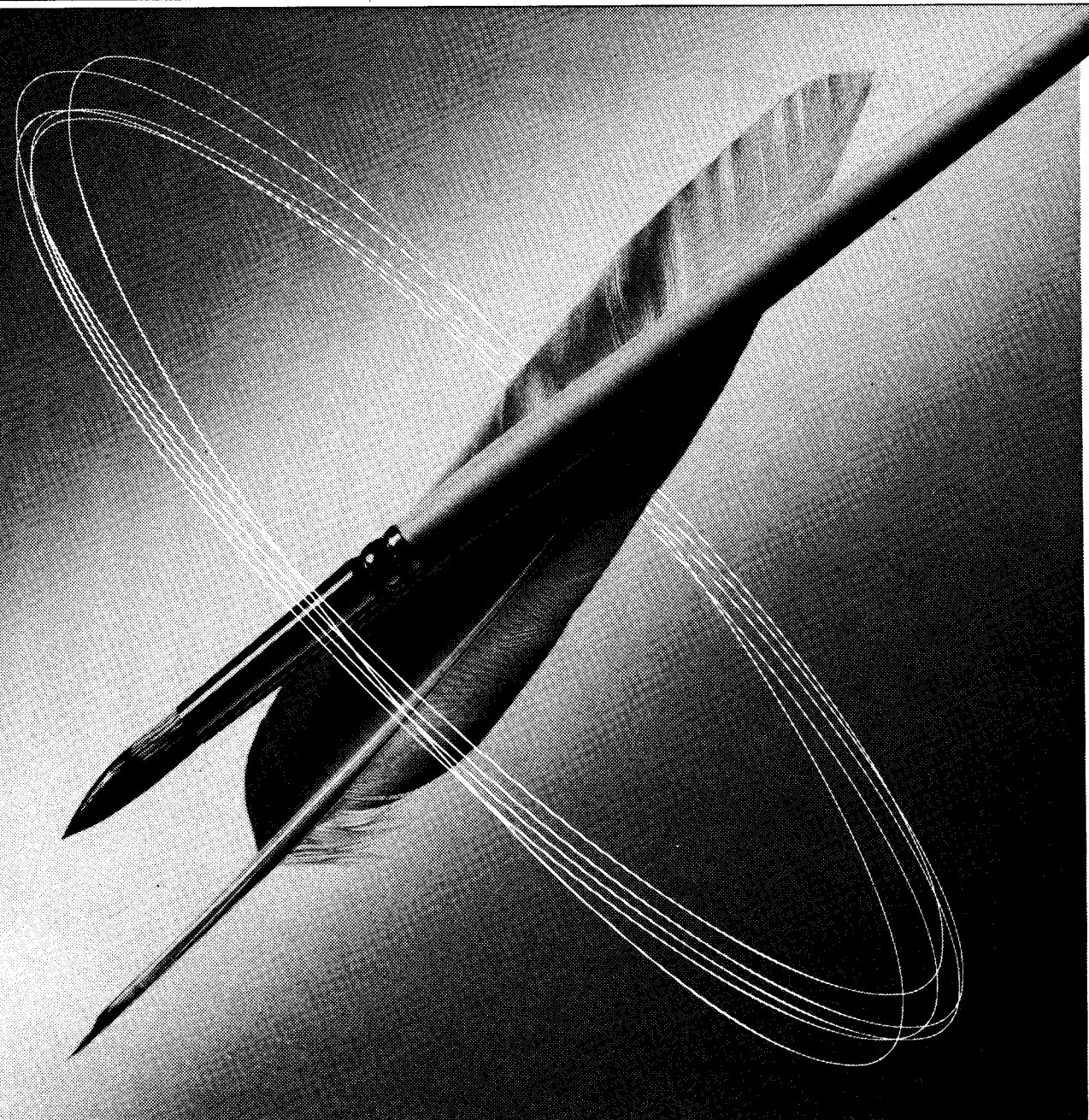


〈1면 화보 해설〉

①천지	②백록담	③일출	④구름
-----	------	-----	-----

“반섬의 아침” 작품크기:30x F 재료:흙, 단청, 매디움 작가:김 산 하

제5회엘자에도 대학생광고대상



LG A

1. 응모자격: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석사과정)

2. 응모부품

가. 광고논문(원문)

- ① 천지인의 의의론과 수운론의 광고의 역할
- ② 천지인의 의의론의 확산에 따른 생활운동 광고의 방향
- ③ 국내 커뮤니케이션의 광고의 현황과 과제
- ④ 신기술의 진화적 패턴과 차별화 방안
- ⑤ 드라마 모방광고의 인지효과에 관한 연구

가. 광고논문(원문)

- ① 천지인의 의의론의 확산에 따른 생활운동 광고의 방향
- ② 천지인의 의의론의 확산에 따른 생활운동 광고의 방향
- ③ 국내 커뮤니케이션의 광고의 현황과 과제
- ④ 신기술의 진화적 패턴과 차별화 방안
- ⑤ 드라마 모방광고의 인지효과에 관한 연구

3. 응모기간: 1992년 7월 31일(단, 응모기간은 마감일까지의 도착일에 한함)

4. 작품제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75번지 엘지엘지빌딩 17층 (주)엘지-에드 P.R.팀(TEL. 705-2910-3)

5. 심사: 가. 심사위원은 학제 및 광고제를 망라한 사제의 권위자로 위촉 나. 전체 응모작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비심사와 작품을 대상으로 본심 실시

6. 입상자 발표: 1992년 8월 입상자에게 개별통지, 사보 "엘지-에드" 1992년 9월호에 발표

7. 시상: 가. 광고논문

대 상	1등	상장, 트로피 및 상금 1,500,000원
우 수 상	1등	상장, 트로피 및 상금 1,000,000원
가 장	2등	상장, 트로피 및 상금 500,000원
신 란 단 주	상장 및 기념품	

나. 광고작품

대 상	1등	상장, 트로피 및 상금 1,500,000원
우 수 상 (TV 광고부문)	1등	상장, 트로피 및 상금 1,000,000원
우 수 상 (라디오 광고부문)	1등	상장, 트로피 및 상금 1,000,000원
우 수 상 (신문 광고부문)	1등	상장, 트로피 및 상금 1,000,000원
가 장 (TV 광고부문)	2등	상장, 트로피 및 상금 500,000원
가 장 (라디오 광고부문)	2등	상장, 트로피 및 상금 500,000원
가 장 (신문 광고부문)	2등	상장, 트로피 및 상금 500,000원
신 란 단 주	상장 및 기념품	

8. 기타

- ① 입상자가 당시에 입사를 희망하는 경우 서류전형 단계 및 면접에서의 특전을 부여하며, 입상자 중 팀당 1명씩 1993년 겨울방학 1개월간 당시 입상자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 ②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당시에 귀속됩니다.
- ③ 응모작품은 심사위원(당사 소정인사) 및 원고지 5개 내외의 논문으로서 또는 작품명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팀 단위로 응모하는 경우 5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LG 엘자에도